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 분석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Staffs' Perceptions of School Library Evaluation

강 봉 숙(Bong-Suk Kang)*

〈목 차〉

I. 서론	I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인식
1. 연구의 목적	1.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인식
2. 조사대상 및 방법	2.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에 대한 인식
3. 선행연구 분석	IV. 결론 및 제언
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추이 분석	
1.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2.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참여율이 낮로 저조해지고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가의 변화 추이와 평가 참여 인력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지표 변화 추이 등을 문헌조사로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은 09년에 22.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17년 7.2%까지 낮아졌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인식은 2.84점,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는 2.97점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지표 타당도 인식 평균은 3.90점으로 가장 높게, '지역사회 봉사'는 2.2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평가 미참여 이유에 '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의 평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해 낮은 인식이 조사된 바, 평가지표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 개선을 이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평가 운영주체는 평가의 결과를 다시 학교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 경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school library operation whose participation rate is getting lower. We conducte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ng evaluation of school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search. In doing so, questionnaire method was conducted to inquire the recognition of the 205 staff members of school libraries. The outcome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participation rate of operating evaluation of school libraries decreased from 22.2% in 2009 to 7.2% in 2017. The validity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was significantly low at 2.84 and the validity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 was 2.97. The average score of the validity index for 'Establishing the annual operation plan' was the highest at 3.90, and that of 'Community service' was the lowest at 2.27. The biggest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was due to the staff's high workload. There is a need to seek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and ways to participate since the result shows very low awareness of the school library evaluatio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chool library evaluation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revitalization of school library operation.

Key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evaluation, School library administration

* 대구 다사고등학교 사서교사(fineday4u@korea.kr)

•논문접수: 2019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제재확정: 2019년 3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293–312,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293>]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단위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환류함으로 우수도서관 발굴 및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전수를 대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아 도서관 운영과 평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관종의 경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참여가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과 과급 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최근 참여율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 동시에 교육부가 평가 주체가 아니기에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게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관심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간과할 수 없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각 1명씩 배치하고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할 학교도서관의 수는 적게는 강원 82개관, 많게는 경남 1,000개관, 서울 1,359개관, 경기 2,418개관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단위 학교도서관 운영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장학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미비를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평가에는 학교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교육 등을 점검하는 기본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2018학년도부터 학교 평가도 의무 참여에서 자율로 변경되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운영 상황을 기초적으로 점검하여 환류 작용을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본적 관리·감독 도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평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평가에 비해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그 평가 항목과 지표가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개별 학교도서관이 보다 심층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할 학교도서관 장학의 가장 효율적 도구이다. 그렇기에 학교도서관 운영평가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안정적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제고는 호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지표 및 운영평가 참여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도서관 평가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운영 요소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가늠해 보게 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 개선 및 재교육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현조사와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 변화 및 참여 추이 분석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평가 자료실에 2019년 2월까지 탑재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수합해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웹 설문지를 제작·배포하여 2018년 8월 22일에서 9월 12일까지 3주간 회수하였다.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교사, 교사, 교육공무직 사서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 홍보 독려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205명이 응답해준 자료로 그 인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 대상자의 배경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별 분포 상황

변인		변인별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
성별	남	18(8.8)	205(100.0)
	여	187(91.2)	
근무지	시	100(48.8)	205(100.0)
	도	105(51.2)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57.6)	205(100.0)
	교육공무직 사서	74(36.1)	
	일반 교사	13(6.3)	
연령대	20대	29(14.1)	205(100.0)
	30대	76(37.1)	
	40대	76(37.1)	
	50대 이상	24(11.7)	

먼저 성별에 따라 남성은 205명 중 18명으로 8.8%, 여성은 187명으로 91.2%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근무지 교육청별로 시 단위 교육청 근무자는 100명으로 48.8%를 차지하였고 도 단위 근무자는 105명으로 51.2%였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유형별로 사서교사가 118명으로 57.6%, 교육공무직 사서가 74명으로 36.1%, 교과교사가 13명으로 6.3%였다.

본 연구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알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하위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인식과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영역으로 나누어 두 개의 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문항은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5개 영역의 각 하위 영역에 따라 타당도를 물어 전체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참여 여부와 미참여 이유에 대한 조사,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조사, 그리고 실사 단계 이상 참여 여부, 실사 과정의 타당도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를 묻는 질문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타당도 및 미참여 이유에 대해 척도 값으로 조사한 문항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표현한 리커트형 5단계 척도를 채택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적 일관성의 방법 중 하나인 크론바하 알파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0.7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내 문항의 전체적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되었다.

<표 2> 설문 문항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대영역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I. 인구 통계적 질문		I	6	-
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인식	도서관경영 일반	II-1.1.1~II-1.4.1	6	.817
	정보자원	II-2.1.1~II-2.3.3	8	.893
	시설환경	II-3.1.1~II-3.2.2	4	.915
	인적자원	II-4.1.1~II-4.3.1	3	.798
	도서관서비스	II-5.1.1~II-5.5.1	10	.928
I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참여 여부	III-1	1	-
	미참여 이유	III-2	5	.742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III-3.1	1	-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III-3.2	1	-
	실사 단계 참여 여부	III-4.1	1	-
	실사 과정 타당도	III-4.2	1	-

3. 선행연구 분석

각 관종별 도서관 평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노영희(2017)는 도서관 평가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현연구를 통해 예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텔파이조사를 실시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개발, 지역 사회의 연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 등 5가지 평가영역과 13개 평가항목, 6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또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로 지역문화발전, 문화유산 계승 및 홍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 지역공동체문화형성의 4가지 평가영역을 개발했다.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 평가지표로 리터러시 개선, 학습 및 교육지원, 연구지원 및 정보자원 제공,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 역량강화의 5가지 평가영역을 개발했다.

차미경 등(2015)은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 동일한 평가지표가 적용된 2010년에서 2013년도의 4년간의 평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규모를 기준으로 범주별 분석과 지역 간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 그룹 별로 투입 자원과 도달률 사이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여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보일(2018)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 배점 구성과 실제 환경과 괴리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계량적 평가

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했다.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곽철완 등(2009)은 국내·외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를 조사·분석하여 투입분야에 예산 관련 2개 지표와 산출분야에 장서항목의 3개 지표, 이용항목에 3개 지표의 양적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소장도서와 해당 연도에 구입한 도서의 이용율에 대한 질적 평가 항목을 함께 제시하여 학교도서관을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질적 평가지표를 제안했다. 남영준 등(2010)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평가지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평가지표, 선행연구인 학교도서관의 BSC 성과지표,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과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분석해 8개 영역, 48개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변우열 등(2011)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학교도서관 평가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평가에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2011)은 선행연구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계량화 가능성, 객관성, 자료확보 용이성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해 경영일반, 장서, 시설·설비, 인적자원, 이용, 교육의 6개 영역과 3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서관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도서관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구성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지표와 관련해 현장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가진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이 날로 저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10년간 이어져온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참여와 평가지표 변화 추이와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꼈다.

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추이 분석

1.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처음으로 전 관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8년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는 2007 도서관 평가 시범사업에 적용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항목 및 배점 조정을 거쳐 시설·설비, 자료, 인적자원, 정보·교육서비스, 운영·예산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21개 지표로 완성되었다. 2009년에는 도서관 면적의 전체학생 대비 열람좌석수 비율에 해당하는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 배점을 감소시켰다. 또한 총점을 1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표 3〉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변화 추이

2008년(100점)		2009년(500점)		2010년(500점)		2011-2014년(500점)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		도서관 위치의 적절성	
1. 시설·설비(15)	도서관 규모의 적절성	1. 시설 구조	도서관 면적의 적절성	1. 시설 구조	도서관 면적의 적절성	1. 시설 구조	도서관 면적의 적절성
	도서관 시설의 적절성	1. 시설 설비(75)	전체 확장 면적별 면적적정수 1. 시설 설비	1. 시설 구조	도서관 기본 시설의 적절성	1. 시설 구조	도서관 면적의 적절성
	교수·학습지원 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도서관 기본설비의 적절성
	자료 확보의 적절성	화보	학생 1인당 단행본 수	화보 및 채권	학생 1인당 단행본 수	화보 및 채권	
	자료 구성을 적절성	2. 자료(100)	학생 1인당 연속간행물 수	2. 자료(100)	학제별 장서구성 비율의 적절성	2. 자료(100)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의 적절성
	자료의 최신성	최신성	최근 3년 이내 진행된 단행본 비율	최신성	최신성	최신성	신간자료 확보 현황
	운영 인력의 전문성	3. 인력(75)	전문성	전문성	전문인력 배치	3. 인력(90)	자료의 폐기·재적 비율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전문성강화	최근 3년간 직무연수 시간	전문성강화	직무관련 전문성 향상	전문성강화	자료의 폐기·재적 비율
	교내·외 운영 보조인력의 활용도	보조인력 활용도	보조인력 지원(90)	보조인력 활용도	직무관련 연구모임 참여	보조인력 활용도	자료구입비 현황
	운영협의체의 적절성	운영협의체	운영협의체의 적절성	운영협의체	운영협의체의 구성	운영협의체	운영협의체의 구성
	정보활용교육 실시	정보활용 교육	정보활용교육 실시 여부	정보활용 교육	정보활용이나 정보활용 교육 실시	정보활용 교육	정보활용이나 정보활용 교육 실시
	도서교육 실시	도서교육	1학기 학급당 평균 도서교육 시간	도서활동	도서관련 활동 실시	도서교육	도서 관련 활동 실시
	독서 행사 운영		주당 평균 도서관 활용수업 시간 수	활용수업	주당 도서관 활용수업 시간 수	주당 평균 수업 시간 수	주당 평균 수업 시간 수
4. 정보·교육 서비스(30)	도서관 활용수업	4. 정보·교육 서비스(150)	학기당 평균 도서관 활용수업 수	정보·교육 서비스(150)	학기당 도서관 활용수업 교과목 수	정보·교육 서비스(150)	학기당 평균 교과목 수
	자료의 이용도		학기당 평균 도서관 활용수업 참여 교사 수	활용수업	학기당 도서관 활용수업 참여 교사 수	활용수업	학기당 평균 참여 교사 수
	도서관 운영계획의 적절성	5. 운영·예산(20)	상호협력	상호협력	교과·연계를 위한 DB 구축	교과·연계를 위한 DB 구축	교과연계 관련 도서 목록 제공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지역사회와 상호협력 여부	운영	경기교과시간 외 도서관 활용 수업 실시	경기교과시간 외 도서관 활용 수업 실시	경기교과시간 외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화	정보화 예산(100)	도서관 목록 검색 방법	운영의 일관성	온라인 목록 제공	온라인 목록 제공	온라인 정보화 제공
	예산 확보의 적절성		원문 정보제공 여부	정보화 예산(110)	온라인 예산	온라인 예산	온라인 예산
			예산	예산	학교경상용영비에서 학교 예산 비율	학교 예산 비율	학교 예산 비율
					학교경상용영비에서 학교 예산 비율	학교 예산 비율	학교 예산 비율
							도서관 예산 증자료구입비 비율
2015-2018년(100점)							
1. 도서관경영(17)	경영계획	1.1.1 중장기(전략적) 운영 계획					
	홍보 및 마케팅	1.1.2 연간 운영 계획					
	협력	1.2.1 홍보 및 마케팅 실적					
	예산	1.3.1 유관기관 협력활동					
		1.3.2 지역사회 분야					
2. 정보자원(18)	장서 현황	1.4.1 예산	1.4.2 연간 학교도서관 예산 현황				
	장서 최신성		2.1.1 학생 1인당 단행본 수				
	장서 구성을 적절성		2.1.2 학교당 연속간행물 수				
			2.1.3 학생 1인당 시장각자료 수				
3. 시설·환경(10)	시설·설비	2.2.1 최신자료 비율					
	적절성	2.2.2 자료의 재적 및 폐기					
		2.2.3 장서구성의 적절성					
4. 인적자원(15)	인력지원 배치	3.1.1 인력지원 배치 유형					
	인력지원 전문성	4.1.1 인력지원 배치 유형					
	교내·외 운영위원회	4.2.1 인력지원의 전문성 신장					
	예산	4.3.1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5. 도서관서비스(40)	이용 접근성	5.1.1 개방시간					
	자료이용 현황	5.2.1 학생 1인당 자료이용 현황					
		5.2.2 교직원 1인당 자료이용 현황					
		5.3.1 도서관회원증 수령 시간(수령자원)					
	정보활용교육	5.3.2 도서관협력망 활동시간(공동사업)					
		5.3.3 정보활용교육·도록교육과정 운영					
	도서교육	5.4.1 독서 홍보 및 족진 활동					
		5.4.2 돋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5.4.3 학교 교육과 연계 활동					
	교육활성화 노력	5.5.1 정보활용, 도서관이용, 도서교육 활성화 노력의 내용과 성과를 중증자료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2010년에는 2009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지표를 반영해 평가지표의 대폭 수정이 있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시상을 신설하였다. 또한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활용수업 항목의 배점과 평가지표를 크게 배정하여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 많은 점수를 할당했으며, 다수의 평가지표를 통해 정보·교육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특히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항목에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할당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방점을 찍은 것이 2010년 평가지표의 뚜렷한 특징이다.

2011년에 다시 평가지표의 수정을 거쳐 201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는 5개 영역, 18개 항목의 새로운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자료 적절성 항목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의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료의 최신성 항목의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하였다. 도서관 이용교육 등 정보활용 교육은 활용수업과 구분이 모호하므로, 활용수업지표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따라 이를 정보활용 교육 및 활용수업으로 함께 평가하였다. 또 학교도서관의 독서활동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독서활동 항목의 점수를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문화된 ‘도서관 운영일지’를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 부분 역시 시설개방이 대부분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로서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해 도서관 홍보 활동으로 평가지표를 대체했다. 운영·예산 영역의 정보화 항목에 도서관 서지DB의 온라인 목록 제공 여부는 전자책, 웹DB 등 온라인 정보원 제공 여부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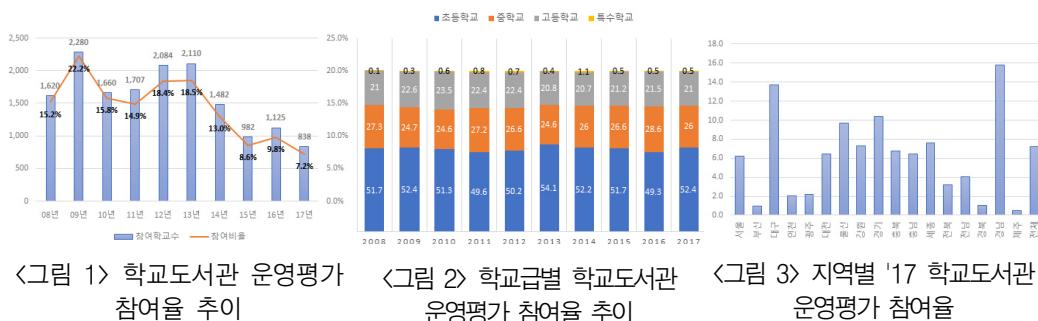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지표는 5개 영역,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역의 순서 및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역시 2014년 평가지표에서 대폭 조정되었다. 특히 그동안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총점은 정량평가를 통해서만 집계해 왔지만 2015년부터는 정성평가 항목에도 6점의 실질적 점수를 부여하여 질적 평가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평가 총점도 기존의 5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각 영역별 배점은 도서관경영 17점, 인적자원 15점, 시설환경 10점, 정보자원 18점, 도서관서비스 4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 지표에 비해 전체 영역 중 도서관서비스의 점수 비중이 40%로 늘어 학교도서관 평가 및 운영에 있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2008년에 15.2%의 참여율로 시작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2009년에는 22.2%로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2009년 평가대상 학교 10,262개교 중 2,280개교가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한 것이다. 2010년에는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10,493개 학교도서관 중 1,660개교가 평가에 참여하여 15.8%의 참여율로 2009년에 비해 낮아진 참여율을 보였

고, 그 이후, 2015년에는 11,390개관 중 981개관이 참가하여 8.6%, 2016년은 11,495개관 중 1,125개관이 참가하여 9.8%, 2017년 기준,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도서관인 11,561개관 중 838개관만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7.2%에 그쳤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최근 참여율은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2017년 참여율을 중심으로 참여율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참여 현황은 초등학교 439개관, 중학교 218개관, 고등학교 176개관, 특수학교 5개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아도 <그림 2>와 같이 초등학교의 참가율은 일정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참여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252개관, 경상남도 158개관, 서울 84개관, 대구 63개관, 충남 56개관, 울산 24개관으로 순으로 참가 학교도서관 수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별 학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참여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림 3>과 같이 경남, 대구, 경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대전, 서울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I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가진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평가지표 타당도와 참여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반적 경향

영역	세부 영역		평균	표준편차
	1. 도서관경영 일반	2.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인식		
	1.1.1 중장기 운영 계획	1.1.1 중장기 운영 계획	2.98	1.298
	1.1.2 연간 운영 계획	1.1.2 연간 운영 계획	3.90	1.064
	1.2.1 홍보 및 마케팅	1.2.1 홍보 및 마케팅	3.08	1.263
	1.3.1 유관기관 협력	1.3.1 유관기관 협력	2.72	1.106
	1.3.2 지역사회 봉사	1.3.2 지역사회 봉사	2.27	1.099
	1.4.1 예산	1.4.1 예산	3.53	1.199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 분석 9

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별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인식	2. 정보자원	2.1.1 학생 1인당 단행본 수	3.01	1.202
		2.1.2 학교 당 연속간행물 수	2.66	1.176
		2.1.3 학생 1인당 시청각자료 수	2.39	1.117
		2.2.1 혁신 자료 비율	3.23	1.116
		2.2.2 제작 폐기 비율	3.44	1.151
		2.3.1 장서개발 정책의 적절성	3.48	1.041
		2.3.2 장서구성의 적절성	2.70	1.165
		2.3.3 자료조직의 적절성	3.39	1.081
		3.1.1 규모	2.98	1.167
I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시설환경	3.1.2 시설 접근성	3.09	1.156
		3.2.1 시설 적절성	3.03	1.086
		3.2.2 설비 적절성	3.01	1.078
	4. 인적자원	4.1.1 인력자원 배치 유형	3.67	1.289
		4.2.1 인력자원의 전문성 신장	3.60	1.215
		4.3.1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3.56	.982
	5. 도서관관서비스	5.1.1 개방시간	3.39	1.186
		5.2.1 학생 1인당 자료 이용	2.90	1.163
		5.2.2 교직원 1인당 자료 이용	2.69	1.172
		5.3.1 도서관활용수업 시간	3.39	1.169
		5.3.2 도서관협력수업 시간	3.01	1.317
		5.3.3 정보활용교육 독립교육과정 운영	2.84	1.361
		5.4.1 독서 홍보 및 촉진 활동	3.32	1.234
		5.4.2 독립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3.47	1.270
		5.4.3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3.29	1.358
		5.5.1 우수사례	3.29	1.366
III.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참여 여부	① 참여	149명	72.7%
		② 미참여	56명	27.3%
	2. 미참여 이유	2.1 참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3.34	1.184
		2.2 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	3.58	1.093
		2.3 평가지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40	1.114
		2.4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3.34	1.150
		2.5 평가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서	3.19	1.207
	3. 전반적 타당도	3.1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2.84	.899
		3.2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2.97	.992
	4. 실사 경험 여부	① 경험(수상까지)	23명	11.2%
		② 경험(실사까지)	19명	9.3%
		③ 미경험	163명	79.5%
	5. 실사 과정 타당도			
			3.03	.947

1.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인식

도서관경영 일반 영역을 살펴보면, 연간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타당도 평균이 3.90점으로 이 평가지표에 대해 가장 높은 타당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에 대한 평가지표 평균이 3.5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홍보 및 마케팅(3.08점), 중장기 운영 계획(2.98점), 유관기관 협력(2.72점), 지역사회 봉사(2.27점) 순으로 타당성 인식이 조사되었다. 도서관경영 일반 영역에서 별도로 타당도 인식 차를 보인 평가지표를 살펴 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장기 운영 계획, 연간 운영 계획, 홍보 및 마케팅이다. 세 가지 평가지표 모두 근무지와 인력 유형에 따라 평균차가 나타났는데 근무지에 따라서는

도 단위 근무인력보다 시 단위 근무인력의 타당도 인식이 높았으며, 인력 유형에 따라서는 사서교사,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 교사 순으로 타당도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유기술 문항을 살펴보면, 평가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관리자, 담당자,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학교도서관에 중장기 계획 수립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점수화는 아동 안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이다.

〈표 5〉 도서관경영 일반 영역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변인별 인식 차가 있는 평가지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중·장기 운영 계획	근무지	시	100	3.28	1.215	3.300**
		도	105	2.70	1.316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26	1.208	7.646***
		교육공무직 사서	74	2.66	1.306	
		일반 교사	13	2.23	1.423	
연간 운영 계획	근무지	시	100	4.05	.957	2.026*
		도	105	3.75	1.142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4.14	.963	8.487***
		교육공무직 사서	74	3.61	1.057	
		일반 교사	13	3.31	1.377	
홍보 및 마케팅	근무지	시	100	3.31	1.178	2.545*
		도	105	2.87	1.309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42	1.033	11.447***
		교육공무직 사서	74	2.66	1.368	
		일반 교사	13	2.38	1.609	

〈표 6〉 정보자원 영역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변인별 인식 차가 있는 평가지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단행본 수	연령대	20대	29	2.55	1.152	2.661*
		30대	76	2.97	1.200	
		40대	76	3.26	1.182	
		50대 이상	24	2.92	1.213	
연속간행물 수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2.75	1.185	4.176*
		교육공무직 사서	74	2.68	1.099	
		일반 교사	13	1.77	1.235	
	연령대	20대	29	1.90	1.081	5.607**
		30대	76	2.66	1.102	
		40대	76	2.87	1.124	
시청각자료 수	연령대	50대 이상	24	2.92	1.349	4.875**
		20대	29	1.76	.912	
		30대	76	2.32	1.023	
		40대	76	2.62	1.200	
제작·폐기 비율	근무지	50대 이상	24	2.63	1.096	2.217*
		시	100	3.62	1.099	
		도	105	3.27	1.179	

정보자원 영역에서는 장서개발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성 인식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작·폐기 비율(3.44점), 자료조직의 적절성(3.39점), 최신 자료 비율(3.23점), 학생 1인당 단행본 수(3.01점), 장서구성의 적절성(2.70점), 학교 당 연속간행물 수(2.66점), 학생 1인당 시청각자료 수(2.39점)의 순으로 타당성 인식이 조사되었다. 변인별 타당도 인식 차를 보인 평가지표는 <표 6>과 같다. 제작·폐기 비율 평가지표의 경우 시 단위 근무 인력의 타당도 인식이 도 단위 근무 인력 타당도 인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이며 높았다. 연속간행물 수, 시청각 자료 수의 평가지표 모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타당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단행본 수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타당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50대 이상보다는 40대의 타당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에 작은 차이를 보였다. 연속간행물 수의 경우 인력 유형 변인에 따라서도 타당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서교사,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 교사 순으로 높은 타당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술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자료의 최신성 평가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출판된 자료의 비율에 대한 문항에 출판년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기준에 제시된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 자체가 학교도서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대다수의 학교에서 기준보다 ‘문학’ 주제 장서 비율이 높아 기준을 지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환경 영역의 타당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는데, 시설 접근성이 3.09점으로 그중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적절성(3.03점)과 설비 적절성(3.01점), 규모(2.98점) 순으로 타당성 인식이 조사되었다. 변인별로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평가지표가 연령대에 따라 타당도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설비 적절성을 제외하고 40대의 타당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대, 30대, 20대 순의 타당도 인식이 나타났다. 설비 적절성의 경우 40대와 50대 이상의 타당도 인식이 동일하게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자유기술 문항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수립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시설 등 담당자가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학교 상황, 구름 다리 위치에 따라 2~3층이 접근이 높은 경우 있기에 일괄 1층에 도서관이 위치해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동도서관을 둔다면가 층마다 반납함을 두거나 예약 도서를 직접 가져다 주거나 하는 식이면 1층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5층에서 1층까지 쉬는 시간에 내려갈 학생은 거의 없다.

인적자원 영역의 타당성 인식은 인력자원 배치 유형이 3.6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인력자원의 전문성 신장이 3.60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이 3.56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평가지표에 있어서 인력 유형에 따른 타당도

인식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사서교사,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 교사 순의 타당도 인식을 보였다. 인력자원 배치 유형 평가지표의 경우 근무지에 따라서도 타당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 단위 근무 인력의 타당도 인식이 도 단위 근무 인력의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공무직 사서와 일반 교사의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비해 낮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지표의 내용과 변인 간 인식의 차이가 일치하여 변인별 차 역시 두드러진 점이 주목된다.

〈표 7〉 시설환경 영역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변인별 인식 차가 있는 평가지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규모	연령대	20대	29	2.48	1.184	2.709*
		30대	76	2.96	1.064	
		40대	76	3.20	1.178	
		50대 이상	24	2.96	1.301	
시설 접근성	연령대	20대	29	2.48	1.090	3.565*
		30대	76	3.11	1.114	
		40대	76	3.29	1.175	
		50대 이상	24	3.13	1.116	
시설 적절성	연령대	20대	29	2.45	1.183	4.208**
		30대	76	3.00	.993	
		40대	76	3.26	1.075	
		50대 이상	24	3.13	1.076	
설비 적절성	연령대	20대	29	2.38	1.147	3.372**
		30대	76	2.95	1.005	
		40대	76	3.25	1.072	
		50대 이상	24	3.25	.944	

〈표 8〉 인적자원 영역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변인별 인식 차가 있는 평가지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인력자원 배치 유형	근무지	시	100	3.89	1.100	2.391*
		도	105	3.47	1.421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4.31	.770	56.843***
		교육공무직 사서	74	2.93	1.328	
인력자원의 전문성 신장	인력 유형	일반 교사	13	2.08	1.256	
		사서교사	118	4.04	.973	
		교육공무직 사서	74	3.18	1.163	30.407***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인력 유형	일반 교사	13	2.00	1.354	
		사서교사	118	3.85	.883	
		교육공무직 사서	74	3.22	.955	14.794***
		일반 교사	13	2.85	1.068	

자유기술 문항 분석 결과, 사서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이나도록 점수를 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운영평가의 지표는 지향해야 할 이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인적자원에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타당

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도서관서비스 영역의 타당성 인식은 독립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3.4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개방시간이 3.39점, 도서관활용수업 시간 3.39점, 독서 홍보 및 촉진 활동 3.32점,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사례가 공통적으로 3.29점, 도서관협력수업 시간 3.01점, 학생 1인당 자료 이용 2.90점, 정보활용교육 독립교육과정 운영 2.84점, 교직원 1인당 자료 이용 2.69점의 순으로 타당도가 조사되었다. 도서관서비스 영역에서 변인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 평가지표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10개 평가지표 모두에서 인력 유형에 따른 타당도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도서관서비스 영역에 대한 10개 평가지표 전체에 있어서 사서교사,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 교사 순으로 타당도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연령대나 근무지에 따라 나타난 변인별 타당도 인식 차이 역시 다른 영역의 평가지표에서 나타난 타당도 인식 차이의 순서와 같게 단위 근무자보다는 시 단위 근무자가, 40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타당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술 문항을 살펴보면, 1인당 대출자료 수에 대한 의견이 존재했다.

1인당 대출자료 수에서 도서관활용수업이 활성화된 학교의 경우, 도서관에서 수업 중에 자료를 활용하고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1인당 대출자료 수로 평가 점수를 배정하면, 학교 규모에 따른 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학교만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평가지표 간 중첩된 항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2의 홍보와 마케팅 평가지표와 5.4의 독서 홍보 및 촉진 평가지표, 그리고 5.4 독립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5.4 학교 교육 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중복되는 느낌이다. 독서노트나 독서감상문 쓰기는 한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설 영역과 같이 담당자가 노력을 기울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의 배점을 낮추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우수사례를 통한 교육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기준을 제시하고 배점을 높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3페이지 제한 분량을 5페이지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9〉 도서관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변인별 인식 차가 있는 평가지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개방시간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60	1.079	9.254***
		교육공무직 사서	74	3.26	1.159	
		일반 교사	13	2.23	1.536	
학생 1인당 자료 이용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2.86	1.179	5.776**
		교육공무직 사서	74	2.58	1.110	
		일반 교사	13	1.77	1.013	
교직원 1인당 자료 이용	연령대	20대	29	2.07	1.132	3.892*
		30대	76	2.71	1.093	
		40대	76	2.92	1.241	
도서관활용수업 시간	인력 유형	50대 이상	24	2.63	1.013	5.776**
		사서교사	118	2.86	1.179	
		교육공무직 사서	74	2.58	1.110	
도서관협력수업 시간	연령대	일반 교사	13	1.77	1.013	3.892*
		20대	29	2.07	1.132	
		30대	76	2.71	1.093	
정보활용교육 독립 교육과정 운영	인력 유형	40대	76	2.92	1.241	3.892*
		50대 이상	24	2.63	1.013	
		사서교사	118	3.57	1.139	
독서 홍보 및 촉진 활동	인력 유형	도	105	3.21	1.174	2.231*
		사서교사	118	3.70	1.032	
		교육공무직 사서	74	2.99	1.164	
독립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유형	일반 교사	13	2.77	1.481	11.576***
		사서교사	118	3.34	1.228	
		교육공무직 사서	74	2.65	1.276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유형	일반 교사	13	2.08	1.441	10.645***
		사서교사	118	3.16	1.346	
		교육공무직 사서	74	2.53	1.219	
독서 홍보 및 촉진 활동	연령대	일반 교사	13	1.69	1.316	8.111***
		사서교사	118	3.59	1.119	
		교육공무직 사서	74	3.03	1.182	
독립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유형	일반 교사	13	2.54	1.808	3.528*
		20대	29	2.72	1.279	
		30대	76	3.36	1.174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40대	76	3.57	1.215	3.274*
		50대 이상	24	3.17	1.239	
		사서교사	118	3.68	1.162	
독립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유형	도	105	3.28	1.341	2.307*
		사서교사	118	3.77	1.180	
		교육공무직 사서	74	3.15	1.143	
독립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일반 교사	13	2.62	1.895	9.333***
		20대	29	2.90	1.472	
		30대	76	3.53	1.160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유형	40대	76	3.71	1.242	3.274*
		50대 이상	24	3.25	1.260	
		사서교사	118	3.64	1.271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교육공무직 사서	74	2.86	1.264	11.052***
		일반 교사	13	2.46	1.664	
		20대	29	2.76	1.504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30대	76	3.29	1.231	2.871*
		40대	76	3.57	1.417	
		50대 이상	24	3.04	1.197	

우수사례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62	1.247	8.970***
		교육공무직 사서	74	2.91	1.336	
		일반 교사	13	2.54	1.761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전반적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한,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는 2.84점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는 2.97점으로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실사 선정 및 수상 결정 단계의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03점으로 조사됐다. 전반적 타당도에 대해서 역시 변인에 따라 타당도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도서관 운영평가가 양적 평가 도구로 타당한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무지, 인력 유형에 따라 양적 평가 도구로의 타당도 인식 차이가 있었다. 도 단위 근무자보다는 시 단위 근무자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교사,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 교사 순으로 타당도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질적 평가 도구로 타당성을 묻는 문항에 남성의 타당도 인식이 여성의 타당도 인식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표 10〉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전반적 타당도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

전반적 타당도 영역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양적 평가 도구	근무지	시	100	2.97	.858	1.977*
		도	105	2.72	.925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01	.892	5.091**
		교육공무직 사서	74	2.65	.883	
		일반 교사	13	2.46	.776	
질적 평가 도구	성별	남	18	3.44	.922	2.291*
		여	187	2.92	.989	

2.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1회라도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149명(72.7%)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56명(27.3%)이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참여 이유로 ‘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가 3.58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평가지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40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참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와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가 공통적으로 3.34점으로 조사되었다. 실사 및 수상 경험 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경험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44명(20.5%), 미경험한 인력이 163명(79.5%)로 조사되었다.

미참여 이유를 묻는 문항 중 ‘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 항목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력 유형에 따른 변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 교사의 평균이 4.46점으로, 사서교사(3.54점)나 교육공무직 사서(3.49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일반 교사의 경우 업무 분장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른 인력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11〉 미참여 이유-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인력 유형	사서교사	118	3.54	1.043	4.732 ^{**}
	교육공무직 사서	74	3.49	1.113	
	일반 교사	13	4.46	1.127	

자유기술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시 시기의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도서관과 관련된 통계를 연간 3회 이상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집하는 지금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서 도서관 평가 입력기간을 현행 7월에서 4월중으로 조정하여 도서관 통계, 학교 통계, 정보공시 입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실적을 입력하는 상황이라 담당자가 바뀔 경우 자료 수집을 위해 입력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항상 운영평가 공문이 학교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평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 평가가 늘 방학 중에 이루어져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차 평가 방법을 간소화하고 실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유기술 응답도 존재했다.

평가 입력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첨부까지 하자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 평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사점검은 강화하고,

모든 학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및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참여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어려워 참여하기가 쉽지 않네요. 작은 옷을 얹지로 입는 기분이에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평가 독려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교육청과 연관있는 교육부에서 실시한다면 많은 학교가 참여할 것인데 문제부라서 학교와는 조금 연관이 없다는 인식에 자율적으로 미참여를 선택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강조하지 않고 임의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교육청에서 연수 등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기관 표창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또 소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도서관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

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평가 결과가 수상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체 학교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기관 표창으로 학교 명예를 높일 수 있으나 교사 개인 표창 받기는 어려운 게 단점. 사명감으로 준비 하지만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있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정 점수이상 나오는 우수 학교도서관에는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같은 것 등 꼭 수상이 아니라도 격려하는 의미의 무언가 보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뒤쳐지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도서관의 경우 문제를 진단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근거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입력도 간단하게 해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에 따라 드러나는 평가 결과를 인력 배치 등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기술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풍부히 제시되었으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도 존재했다.

평가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관리자들과 운영자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제시하는 것이지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고 평가지표의 방향성도 대체로 적합하다 봅니다.

평가받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결론 및 제언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2008년부터 이뤄져 현재 10개 년도의 평가 결과 분석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그 참여율은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고, 현장에서의 의미도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와 참여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 개선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는 최초 개발된 후 다섯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5개 영역 17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은 평가 시행 2년차인 2009년에 22.2%의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아래, 2017년에는 7.2%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지표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양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 인식은 2.84점,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타당도는 2.97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타당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가지표 중 ‘연간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지표 타당도 인식 평균은 3.90점으로 가장 높게, ‘지역사회 봉사’는 2.2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변인별로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인식이 다양하게 조사된 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응답 분석 결과, 평가지표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또 전담인력의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든 평가지표인 시설, 인력 유형 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서비스 영역에 평가의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회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자가 72.7%로,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27.3%로 조사되었다. 평가 미참여 이유로 ‘학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에 대한 평균이 3.58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일반 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업무 분장으로 맡는 경우 이 이유에 대한 평균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사서교사 및 사서의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응답 분석 결과, 평가 입력과 실사 평가의 시기 조정, 평가 방법 간소화, 교육청 차원의 참여 독려책 마련, 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의 요구가 강하게 표현됐다.

연구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가 평가 운영 주체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모두에게 본말전도 상황에 놓여 참여율과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됐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게 학교도서관 운영평가가 학교도서관 운영을 점검해 학교도서관을 이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침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수상을 위해 참여하는 도구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운영 주체도 평가 자체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할 뿐,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노력은 정작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상황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평가가 학교도서관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선도하는 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운영평가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책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도 활발히 이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곽철완, 노영희. 2009.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83–196.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online]. <<https://kess.kedi.re.kr>>. [cited 2019. 2. 20].

- 김보일. 2018.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5–34.
- 김성준. 2011.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5–26.
- 남영준, 정경애. 2010.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99–131.
- 노영희. 2017.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181–214.
- 노영희. 2017.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 5–34.
- 노영희. 2017.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77–205.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https://www.libsta.go.kr>>. [cited 2019. 2. 20].
- 변우열, 이병기, 김성준. 2011.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51–73.
- 차미경, 표순희. 2015.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성과에 관한 연구 : 2010년~2013년도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241–26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Byeong-Ki Lee and Sung-Jun Kim. 2011.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51–73.
- Cha, Mikyeong and Soon Hee Pyo. 2015. "A Study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Evaluation on Public Library Management During 2010~2013."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241–268.
- Kim, Bo-il.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Small Library Oper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5–34.
- Kim, Sung-Jun.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5–26.
- Kwak, Chul-Wan and Younghhee Noh. 2009.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School

- Library Evaluation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83–19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https://www.libsta.go.kr>>. [cited 2019. 2. 20].
-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online].
<<https://kess.kedi.re.kr>>. [cited 2019. 2. 20].
- Nam, Young-Joon and Kyeng-Ae Jung. 2010. "A Study on the New Evaluation Index of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99–131.
- Noh, Younghée.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Measuring Educational Value of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4): 5–34.
- Noh, Younghée. 2017. "A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 Development of Cultural Value of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177–205.
- Noh, Younghée. 2017. "Research on Development of Social Value Evaluation Indicators for Public Librari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181–214.